

200자 안내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

사무엘 스마일즈 지음 / 박달규 편역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할 것을 가르치는 처세서.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과 영광과 보람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을 위한 방편으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自動인데, 자조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262면 / 3000원

甌山道 大道問答

安耕田 지음

증산도에 입문하고 싶거나 관심있는 이들을 위해 증산도의 교리의 핵심을 문답식으로 꾸민 책. 증산도의 역사, 창조관, 구원관, 미래관에 관한 123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대원출판 / A5신 / 228면 / 3200원

藝術과 文明

케네드 클라크 지음 / 최석태 옮김

영국 BBC TV의 교양프로그램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책. 미술사가로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저자가 서양의 문명과 예술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프랑스의 루브르미술관을 탐방하며 문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샤르트르대성당을 보며 고딕의 세계를 안내하는 등 서양문명의 형성과정을 미술사를 통해 들려준다.

문예출판사 / A5신 / 332면 / 5000원

사랑을 위한 소나타

한국 여류문학인회 엮음

여류문인 95인이 한해동안 발표한 에세이들을 한 작품씩 모아 묶었다. 현대인의 소비적이고 향락적 문화행태를 비판한 홍윤숙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비롯해서 본능보다 차원 높은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고귀함을 이야기한 임옥인과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 쓴 강신재 등 섬세한 여류문인들의 작품이

3부로 나뉘어 실려 있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364면 / 3500원

싱클레어의 고백

헤르만 헤세 지음 / 광복록 옮김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를 통해 젊은 시절의 번민과 사랑이야기를 고백한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에세이집. 동양철학에 바탕을 두고 인간생명의 구도로 작품을 승화시켰던 작가의 영혼과의 대화가 방향과 혼돈을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사색의 공간을 마련해준다. 「데미안」 「싯달다」 「유리알 유희」 등에서 나온 문장을 채록한 '명상록'도 담았다.

현대문학출판사 / A5신 / 238면 / 2800원

韻律音韻論

리차드 호그, C.B. 맥컬리 지음 / 金明湖 옮김

영어의 강세와 리듬현상에 주목한 운율음운론 입문서. 강세의 분절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운율음운의 기본개념과 리듬 음운의 운율格子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적인 음운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에 연습문제를 수록했다. 운율음운론에 대한 분석적 기교의 연습과 이론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신문화사 / A5신 / 390면 / 5000원

혼자 일어설 때 햇살은 더욱 눈부시다

김민숙 지음

「내이름은 마야」 「목요일의 아이」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작가가 13년 동안 여러군데 발표했던 수필들을 모아 엮은 첫 에세이집. '모든 것은 사랑에 있다' '여자여 일을 가져라' '기억의 강을 따라 흐르는 꿈의 조각들' '아름다운 유혹의 설운'의 4부로 엮여졌는데,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청한 / A5신 / 286면 / 3500원

고통

앙드레 드 리쇼 지음 / 이재형 옮김

「번덕장자들의 샘」 「동네」 등 독창적인 작품을 썼던 저자의 처녀작. 사랑과 증오의 모순적인 감정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이다. 정신적 고통보다는 육체적 고통을 다루었는데, 대부분의 프랑스 문학작품들이 정신적·도덕적 고뇌와 갈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예하 / A5 / 197면 / 2500원

부동산의 虛와 實

梁貴萬 지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재산가치로 볼 때 부동산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 책은 땅의 역사를 비롯, 부동산의 실상과 허상을 故事를 곁들

여 서술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정보의 선별법, 부동산시장의 성질, 계약의 허점 등등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요령을 흥미롭게 설명했다.

生活文庫社 / A5신 / 286면 / 3500원

이데올로기역사

F.M 왓킨스, 크래닉 지음 / 嚴秀鉉 옮김

현대 정치사상의 본질과 영향을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한 기초입문서. 미국 독립전쟁 전후에서 현재에 이르는 각종 이데올로기와 정치사상의 발생과정 및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존 로크의 자유주의,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엔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레닌주의와 정통마르크스주의의 조화문제, 파시즘, 모택동주의 등등 각 시대상황과 밀접한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파헤친다.

兵學社 / A5신 / 166면 / 3000원

사랑을 흠치는 아이들

이도 시게히라 지음 / 김형철 옮김

비행청소년의 심리상태 및 진정한 카운셀링의 조건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핀 책.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격려해주는 것만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길이며 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나라원 / A5신 / 230면 / 2800원

오늘의 韓國的 經營

이관희 편저

미국적 합리주의나 일본적 집단주의의 모방에 주력하여 혼합적인 형태로 발전해온 한국의 경영형태를 비판하고, 우리의 문화체계에 뿌리박은 고유한 경영문화 형성 가능성을 진단한 한미학자 5인의 연구논문 11편을 수록했다. 한국·미국·일본·동남아 각국의 경영문화를 비교검토하는 한편,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예로 쌍용그룹의 경우를 살펴보고 있다.

經文社 / A5신 / 265면 / 4300원

홀로 부르는 애국가

崔臣海 지음

정신분석의이자 수필가로도 활발히 활동해 온 저자(청량리 정신병원 원장)의 열번째 수필집. 현대인의 삶의 실상, 올바른 자아의식, 윤리와 도덕, 국가관 등 다양한 주제들을 저자가 40여년 동안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풍부한 위트를 바탕으로 이야기했다.

正音文化社 / A5신 / 322면 / 3000원

간디의 명상일기

로망 롤랑 외 지음 / 신관용 옮김

인도독립운동의 지도자이며 위대한 사상가인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을 그가 남긴 명상록

을 통해 살핀 책. 프랑스 작가 로망 롤랑의 간디 전기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경제학자 라오박사가 옥스포드대에서 행한 연설문 「간디의 사회공동체주의」도 함께 수록했다.

인왕출판사 / A5신 / 284면 / 3500원

선공부

스즈키 다이세쯔 지음 / 박용길 옮김

일본의 불교학자이며 특히 선불교 연구에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던 스즈키 다이세쯔의 대표적인 저서. 불교와 선종의 관계, 선불교의 특징, 선불교에 있어서 자연의 역할 등 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핵심을 설명하고 있어 일반독자들의 선공부 지침서로도 유용하다.

해담 / A5신 / 246면 / 3500원

大地의 노래

李慶淑 지음

서울대 음대 성악과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의 수필집. 자신의 인생관과 예술론을 담담한 필치로 이야기하는 한편, 성악계 거장들의 음악세계와 저자 자신의 음악기행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음악수필로서도 흥미롭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오페라의 꿈」 「현재명 박사」 등 모두 60여편의 글을 수록했다.

전예원 / A5신 / 228면 / 3500원

늑대를 기다립니다

신상성 지음

1979년 소설 「회귀선」으로 등단한 작가의 두번째 창작집. 「목숨의 끝」 「제비집 짓기」 「사이공의 니르바나」 「木佛」 「쑥새와 마징거」 등 모두 13편의 단편을 통해, 지식인들의 본질과 존재방식 그리고 그 기능에 관한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

경운출판사 / A5신 / 381면 / 3500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로버트 에이치 커번 지음 / 이환진, 정영식 엮음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사회로 첫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 및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종교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상에 관한 물음, 나 자신에 관한 물음, 하나님에 관한 물음 세부적으로 나누어 신학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청노루 / A5신 / 294면 / 3500원

아이는 아버지의 등허리에서 배운다

타쿠마 타케토시 지음 / 임종삼 엮음

「현대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녀교육이 어머니만의 역할처럼 되어버린

현대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자녀교육 지침서. 저자는 부모의 일상생활로부터 자녀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의 세세한 마음씀으로 자식들과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문화출판공사 / A5신 / 212면 / 2500원

日本人의 裸身

김일형 지음

일본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등을 제일교포의 눈으로 살핀 책. 친절하고 예의바르면서도 잔인한 면모를 감추고 있는 일본인의 이중적인 성격을 파헤쳤으며, 차별받고 있는 제일한국인의 실상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명지사 / B6 / 152면 / 2700원

문학이론연구

전정구, 김영민 지음

현대문학의 다양한 비평이론들을 간명하게 통합, 정리하여 비평의 본령과 그 방법의 원리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게 엮어진 입문서. 문학비평의 이론을 광범하게 다루되, 이론의 적용을 위한 실제적 분석의 예를 풍부하게 들어 비평이론의 실천적 활용을 특히 강조했다.

새문사 / A5신 / 232면 / 4300원

무크

철학과 현실 3

[특집] 노동과 분배 ▲합리적 선택론과 분배정의론(김형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이준구) ▲노동시장의 분배기능과 권력구조(한상진) ▲노동의 사회성과 역사성(윤구병) ▲노사분쟁에 있어서 법규범과 공정성(이영희)

[대화] 말의 지배, 힘의 지배(최정호, 이태수, 유근일, 이명현)

[논문] ▲분단시대의 철학(엄정식) ▲도덕적 행위 주체(남경희) ▲정치적 비극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손동현) ▲18~19세기 유럽철학과 역사적 현실(최종욱) ▲음악과 철학(이강숙)

철학과 현실사 / A5신 / 294면 / 3800원

무크

현대시사상 3

[시] 이형기 / 박의상 / 박상배 / 이운택 / 엄승화 / 최계선

[해외시] 실비아 플라스 / 앤 색스틴 / 번역 및 해설 · 김수경

[기획논단] 포스트모더니즘 ▲한국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김윤식)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김성곤) ▲포스트모더니즘과 정치(폴 보베, 이경호 옮김)

[시평] 이기철 / 윤성근 / 조원규 / 박상배 [자료] 의미에서 무의미까지(김춘수) / 대상 · 무의미 · 자유

고려원 / A5신 / 186면 / 2500원

계간지

외국문학 1989년 여름호

[특집] 미국문학 ▲자유에의 탐구(이영옥) ▲60년대 부조리소설(김종운) ▲소설의 죽음과 포스트모더니즘(김성곤) ▲미국의 부조리연극(김윤철) ▲50년대와 60년대의 미국시(신정현) ▲신비평과 그 이후의 미국비평(장경렬) ▲황금기인가 침체기인가?(마크 세크너)

[논문] ▲전기과 자서전의 겹침(강충권) ▲하층계급여성의 소설적 형상화(이동하)

[시] 황동규 / 민용태 / 석지현 / 이영유 / 하재봉 / 장정일 / 안나 요나스

[소설] ▲자유종 III(김수경) ▲알몸과 육성5(최수철) ▲당신이 주신 선물2(이용범) 외 [좌담] 오늘의 세계문학4 볼프강 이저 편(이성호, 이우선, 박상배, 김성곤)

열음사 / A5신 / 392면 / 4000원

사진무크

밝은방 2

[논문] ▲1950년대 리얼리즘 사진의 비판적 고찰(박주석) ▲모홀리 나기의 포토그램 연구(이용환)

[사진작품] ▲뉴욕의 한인예술가들(임영균) ▲임하맹 수몰지역(권태균) ▲일본 이미지(한정식) ▲전쟁과 침묵(성두경) ▲침묵(오상조) ▲긴 오후의 미행II(구본창) ▲꽃(한옥란) ▲탄생이후(김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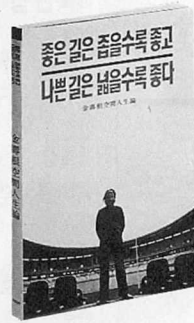
열화당 / A4 / 110면 / 7000원



화제의 책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金壽根 지음



현대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였던 故 김수근 씨의 3주기를 맞아 그가 생전에 남긴 짙막한 수상들이 한데 모여져 책으로 출간됐다.

주로 신문잡지에 발표됐던 글들중 100여편을 추려 모두 6부로 나누어 수록했는데, 그의 인간적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인생론적 단상을 비롯해, 비근한 일상을 통해 날카롭게 간파하는 삶의 기미,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의견과 건축가로서의 창조적 정신 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또한, 그의 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이른바 '한국의 발견'과 관련하여 한국의 전통과 예술에 대한 그 나름의 신선한 재해석도 눈에 띈다.

건축을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직결시킴으로써 건축가가 한 사람의 사회학자로 지향되기를 바랐던 우리 당대의 일급건축가의 면모를 건축이 아닌 문자로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이다. '김수근문화재단' 이사장인 미술평론가 이경성씨의 발문을 붙였다.

空間社 / A5신 / 310면 / 5000원

창간호

진리·자유

연세대학교 엮음



대학신문이 학생들의 목소리에 독점당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들의 저널' 계간 '진리·자유'가 연세대에서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창간호에는 주체사상, 노사문제, 공해문제, 의료보험 등 우리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한 서대숙, 김황조, 권숙표, 김한중교수 등의 논문을 묶은 한편,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좌담과 현장조사 등으로 파헤친 특집도 실고 있다. 그밖에 현대 한국의 정치·사회·경제를 비평한 송복, 허영, 백평선교수의 시사칼럼과 함께,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나일성, 장수경교수의 글을 따로 모아 실었다. 발행처인 연세대와 관련된 인물, 학맥, 전통 등에 대한 기사도 같이 실어 동문지적 성격도 드러내고 있다.

국문과 정현기교수가 주간을, 동문인 프리에디터 김호근씨가 편집디자인을 맡았는데, 전면 아트지의 고급하고 독특한 체재가 돋보인다.

연세대학교 / B5변형 / 152면 / 3000원

이색시집

불의 한강

金桂德 지음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져온 배달민족 5천년사를 풍부한 상상력과 빼어난 어휘구사로 형상화한 장편서사시 「불의 한강」이 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출판인(계원출판사 대표)이기도 한 시인이 지난해 6월부터 「詩文

學」에 14개월간 연재했던 「한강의 불」을 개제하고 일부 내용을 덧붙여 이번에 책으로 묶어냈다.

단군의 개국신화에서부터 삼국의 각축, 신라의 삼국통일, 발해와 후삼국, 고려와 조선사의 영욕, 그리고 일제침탈의 비극 등 우리 민족사의 숲공간을 아우르면서, 한강의 물결처럼 출렁이는 역사의 흐름을 서사시적 스케일과 서정시적 섬세함을 결합시켜 표현해내고 있다.

말미에 붙인 해설 「역사와 서사적 자아」에서 「불의 한강」은 서사시 민국의 한국문학사에 던진 한 시금석에 해당된다"고 평가한 문학평론가 김용직교수(서울대)는 작품이 포괄하는 시공간의 넓이와 그 서사시적 뼈대를 제대로 지탱하는 문체와 가락의 복합적 구사를 「불의 한강」의 미덕으로 꼽고 있다.

문장 / A5신 / 182면 / 2500원